

山淸 默谷里 出土 磨製石劍에 대한 考察

—磨製石劍 編年에 관한 考察—

安 春 培*

차 례

1. 머리말
2. 遺蹟의 位置와 遺物 出土經緯
3. 出土遺物
4. 磨製石劍에 관한 諸說
5. 默谷里 出土 磨製石劍의 性格
6. 맺는말

1. 머 리 말

山淸 默谷里에서 出土된 石劍은 出土例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고 石鏃 가운데 1點은 異例의인 것이어서 이들 遺物을 통하여 西部慶南地方 先史文化의 一端을 考察할 수 있을까 하는 期待와 함께 이들 遺物의 性格을 考察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제까지의 論考들을 檢討해 보고자 한다.

2. 遺蹟의 位置와 遺物 出土經緯

1982年 8月 慶尙南道 山淸郡 山淸邑 默谷里 164의 1에서 發見된 이 遺蹟은 東經 127° 53' 북위 35° 23'에 位置하며 晉州에서 山淸으로 가는 國道를 따라 가다가 德山쪽으로 가는 다리가 있는 院旨에서 江을 건너지 않고 12km 정도 더 北上한 곳인 國道에서 서쪽으로 1km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데 山淸邑 남쪽에 있는 꽃봉산에서 내려온 標高 20m 內외의 얇은 野山 남쪽 傾斜面에 位置한다.

遺蹟의 周圍는 서북쪽과 서남쪽은 機山에서 熊石峰으로 연결되는 산줄기가, 북쪽과 동북쪽·동남쪽은 臥龍山·南山·屯鐵山으로 이어지는 산줄기가 둘러쳐졌고, 서쪽으로는 鏡湖江 강줄기가 山淸邑쪽에서 내려오다가 동남쪽으로 꺾어지면서 감돌고, 동쪽은 臥龍山과 淨水山 사이에서 흘러내린 溪川과 淨水山과 屯鐵山 사이에서 흘러내린 溪川가에 넓은 들이 이루어져 아늑하면서도 큰 江을 가까이 끼고 있고, 동남쪽은 앞이 탁 트여 先史人들이 生活하기에는 좋았던 地形이다. (사진 1)

여기에서 發見된 遺物은 磨製石劍 1點과 石鏃 2點으로 默谷里 건너편 正谷里에 사는 박 한득이라는 中學生이 소를 먹이기 위해 왔다가 이 봉조氏 所有인 이곳 野山 傾斜面의 땅속에 유물이 꽃혀있

* 釜山女大 博物館長

는 것을 一括 發見하고 山淸郡 文化公報室에 申告한 것이다.

默谷里遺蹟 附近에서는 이 遺蹟의 서쪽으로 2km 미만인 鏡湖江 바로 건너편 山淸邑 內里에서 磨製石劍이 出土된 바 있고, 북쪽으로 4km 미만인 山淸邑 玉洞에서는 無文土器가 出土된 바 있다.

3. 出土遺物

1) 磨製石劍 1點(圖版 ①, 사진 2의 右)

磨製石劍은 有樋二段柄으로, 明褐色의 粘板岩製로서 길이 23.7cm인데 劍身은 鋒部는 尖銳하나 劍 끝에서 鐔部쪽으로 3/4쯤 내려온 部分부터 날이 넓어져서 鐔部까지는 4.2cm~5.6cm 幅의 넓은 날이며 劍身에는 鎬를 中心으로 兩側으로 1cm정도 떨어져 길이 8~9cm의 血溝가 斷面 弧形으로 0.1cm 內外로 알게 파여져 있는데 鎬의 두께는 0.9cm이다. 鐔部는 幅이 6.2cm인데 劍身쪽으로는 앞은 턱을 두고 區劃되었으나 柄部쪽으로는 約 4.3cm정도로 좁아지면서 밋밋한 傾斜를 이룬다. 柄部는 斷面이 렌즈형으로 段은 幅 0.4cm정도의 좁은 段이 柄部の 中央보다 若干 윗쪽에 있는데 段은 柄部の 둘레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劍把頭는 境界가 없이 柄部에서 劍把頭쪽으로 가면서 넓어져 幅이 7.3cm, 두께가 1cm이다.

2) 磨製石鏃 2點(圖版 ②③, 사진 2의 左)

磨製石鏃은 모두 2點으로 1點은 菱形有莖石鏃이고, 1點은 이제까지 報告된 例가 없는 特異한 形態로서 鋒部는 斷面이 菱形에 血溝가 있고 後身은 斷面이 偏六角形에 莖이 없는 三角彎入石鏃이다 細部的인 特徵을 자세히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1) 石鏃 ①(圖版 ②, 사진 2의 左의 上)

菱形有莖石鏃인 이 石鏃은 전체길이 5.2cm, 두께 0.6cm인데 鏃身의 幅은 1.3cm이다.

鏃身의 後尾兩翼은 50°정도의 角을 이루고 있고 莖部는 2段으로 鏃身に 이어지는데, 鏃身に 붙어 있는 쪽은 鏃身에서 내려오는 稜角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턱이 진 段이 없는 斷面 六角形의 莖인데 다시 0.3cm쯤 내려오다가 0.1cm정도의 턱이 진 길이 1cm의 斷面 圓形인 莖이 달려 있다.

(2) 石鏃 ②(圖版 ③, 사진 2의 左의 下)

血溝石鏃과 偏平彎入三角形石鏃의 混合形이라고 할 수 있는 이 石鏃은 이제까지 報告된 例가 없는 石鏃이다. 전체 길이는 4.5cm, 鋒部厚 0.4cm, 後身厚 0.2cm, 幅 1.15cm이다.

石鏃의 鋒部는 斷面 菱形으로 稜角을 中心으로 左右에 길이 0.9cm, 깊이 0.05cm 內外의 血溝가 파여져 있는데 鏃身尖端에서 1.6cm 내려온 곳에서 稜角을 갈아 턱을 만들면서 혈구가 끊어지고 斷面이 偏六角形으로 된 길이 0.8cm의 꼬리가 달린 無莖鏃이다.

그런데 默谷里 出土遺物은 遺蹟의 性格을 檢討하는데 몇 가지 問題를 던지고 있다. 여기서 發見된 遺物의 特徵을 이제까지 나온 磨製石劍·磨製石鏃에 관한 研究業績을 토대로 하여 檢討하므로써

이 遺蹟의 性格을 考察하고자 하며 특히 磨製石劍에 관한 研究結果와 比較해 보고자 한다.

3. 磨製石劍에 관한 諸說

이제까지 나온 磨製石劍에 관한 重要한 論考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有光教一氏는 磨製石劍을 자루의 形態에 따라 分類하여 有莖式과 有柄(有節)式 및 無莖無柄式, 劍身部와 柄部無區別式으로 大分하고, 有莖式이 細形銅劍(韓國式銅劍)을 模倣한 것으로 磨製石劍 가운데 가장 先行形式으로 보면서 磨製石劍은 韓國式銅劍을 祖型으로 發生하였다고 보고, 有莖式을 다시 有樋有莖式과 無樋有莖式으로 細分하고, 有柄式은 有樋二段柄式·無樋二段柄式·無樋一段柄式으로 나누었다.

有莖式의 경우는 有樋有莖式에서 無樋有莖式으로 變遷했거나 有樋式과 無樋無莖式이 모두 직접 韓國式銅劍을 祖型으로 하는 것으로 보았고, 또한 有柄式의 경우는 有樋二段柄式에서 無樋二段柄式으로 다시 無樋二段柄式에서 無樋一段柄式으로 發展하였거나 有樋二段柄式과 無樋二段柄式이 모두 韓國式銅劍을 직접 祖型으로 한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¹⁾

有光教一氏의 磨製石劍 編年에 대한 要旨는 磨製石劍에 있어서 血溝를 根據로 磨製石劍의 祖型을 韓國式銅劍에서 구하여 韓國 磨製石劍은 모두 韓國式銅劍보다 後行하는 것이고 有莖式이나 二段柄式보다는 一段柄式이 뒤에 온다는 것이다.

둘째, 金元龍氏는 有柄磨製石劍은 오르도스銅劍을 模倣한 것이고 有莖有溝石劍은 遼寧式(松菊里式)銅劍이 韓國式銅劍으로 完成되는 時期에 韓國式銅劍의 發生地인 平壤地方에서 出現하였다가 有柄式石劍에 압도되어 더 이상 盛行하지 못하고 곧 消滅한 것으로 보았으며 磨製石劍은 典型的인 細形銅劍이 登場하면서 實用劍의 性格에서 副葬用의 儀器로 변한 것이라 하였다.²⁾

金元龍氏의 磨製石劍에 관한 要旨는 磨製石劍은 韓國式銅劍보다 年代가 올라가는 오르도스銅劍을 祖型으로 하고 있다는 것과 磨製石劍은 實用劍으로 出發해서 副葬用劍으로 변한다는 것이며 一段柄式石劍이 가장 先行하는 것이고 有光教一氏가 韓國 磨製石劍의 先行形式으로 본 有樋有莖式은 뒤에 온다는 것이다.

셋째, 甲元眞之氏는 磨製石劍을 有莖式과 有柄式으로 나누면서 그 祖型을 各各 韓國式銅劍과 中國式銅劍에서 구하고 磨製石劍의 變遷을 無樋有莖式은 無樋箍付柄式→無樋二段柄式→無樋一段柄式으로 發展하였고 有樋有莖式은 有樋付柄式→有樋箍二段柄式으로 發展한 것으로 보았다.³⁾ 甲元眞之氏의 要旨는 磨製石劍의 祖型이 韓國式銅劍과 中國式銅劍의 二元的인 것이어서 그 變遷은 有莖式과 有柄式의 系譜에 의한 것이 아니고 有樋式과 無樋式의 系譜에 의해 有莖式에서 有柄式으로 發展하되 有柄式은 二段柄式에서 一段柄式으로 發展한다는 것이다.

1) 有光教一, 1959, 「朝鮮磨製石劍の研究」.

2) 金元龍, 1971, 「韓國磨製石劍의 起源에 관한 研究」〈白山學報 10號〉pp. 4~26.

3) ① 甲元眞之, 1972, 「朝鮮半島의 有莖式磨製石劍」〈古代文化 24-7〉.

② 甲元眞之, 1973, 「朝鮮半島의 有柄式磨製石劍」〈古代文化 24-9〉.

네째, 尹德香氏는 韓國 磨製石劍은 各 形式間에 時間的 先後關係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또한 時間的 先後關係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幅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細部的 變遷은 認定하면서도 石劍形式의 變遷은 否認하였고 石劍形式을 時間的 側面에서의 變遷보다 地域的·機能的 側面에서의 發生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有莖式石劍은 實用과 副葬을 겸했고 鐵器時代가 渡來할 때까지 계속 實用되었으며 石劍發生初期에는 자루에 부착하기 위한 홈이 있다가 다음 段階에는 홈이 없는 石劍이 登場하고 이것이 주로 副葬用으로 血溝와 結合하여 製作되었다고 보고 二段柄式과 一段柄式은 分布狀態가 비슷하나 二段柄式은 基本的인 形態가 柄部の 斷面이 렌즈형이고 一段柄式은 柄部の 斷面이 菱形인데 一段柄式은 주로 墳墓에서, 二段柄은 주로 住居址에서 發見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一段柄은 副葬用으로 二段柄은 實用劍으로 使用되었다고 推定하고 있다.

그리고 磨製形劍의 祖型을 一段柄式은 오르도스劍에서, 有莖式은 滿州式銅劍의 影響을 받은 것이거나 未發見의 어떤 資料가 있을 것으로 보고, 二段柄은 古式滿州式銅劍이나 桃氏劍 혹은 中國式銅劍에서 影響을 받은 것 같으나 確實하지 않으나, 節이 있는 것은 桃氏劍과 中國式銅劍의 影響을 받은 것으로 보았다.⁴⁾ 尹德香氏의 要旨는 韓國 磨製石劍은 오르도스劍·滿州式銅劍·中國式銅劍 등 各種 銅劍을 祖型으로 하여 여러가지 形式이 거의 같은 時期에 發生한 것이고 諸形式間의 變遷을 認定할 수는 없지만 磨製石劍의 發生은 有光敎一氏나 甲元眞之氏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올라간다는 것이며 磨製石劍中에는 實用된 것과 副葬用으로 製作된 것이 있다고 보는데 有莖式의 경우에는 血溝가 있는 것이 副葬用이고, 有柄式의 경우에는 一段柄式이 副葬用인 것으로 推定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金昌鎬氏는 有柄式石劍을 이제까지 다른 사람들이 柄의 形態를 中心으로 分類한 方法을 止揚하고 鐔部の 製作形態를 中心으로 5가지로 區分한 다음에 柄部の 모양에 따라, 즉 段과 節의 有無에 따라 3가지로 나누었고 여기에 血溝의 有無等을 가지고 다시 나누어 13種으로 區分했다.

이렇게 나누어진 各種의 磨製石劍을 共伴出土되는 磨製石鏃과의 關係 및 無文土器 編年과 比較·檢討하여 磨製石劍을 I 期과 II 期로 區分하여 血溝가 있는 石劍이 血溝가 없는 것보다 오랜 것으로 나타나나 I 期에서는 血溝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에 先後關係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단지 二段柄式石劍의 경우 段이 柄部 左右의 바깥 部分에만 있고 가운데 쪽에는 턱이 없는 것이 比較的 오랜 것으로 推定했고, II 期에 이르면 血溝가 있는 石劍은 存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며 磨製製劍의 祖型을 具體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어도 韓國 磨製石劍은 韓國式銅劍보다 先行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⁵⁾ 金昌鎬氏의 要旨는 磨製石劍의 分類基準은 鐔部の 製作形態에서 찾아야 하고 石鏃이나 無文土器와 같은 다른 共伴遺物로 볼 때 磨製石劍은 최소한 韓國式銅劍보다는 先行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全榮來氏는 諸石劍의 形式을 有莖式과 有柄式으로 大別하되 劍身部の 形態, 莖部の 形態, 柄部の 形態, 鐔部の 形態, 血溝의 有無, 鎬의 有無, 刃의 形態 등으로 考察해서 33種으로 細分하고 磨製石劍의 發生과 變遷을 東北地方群과 西北地方群·南韓地方群·後期磨製石劍群 등으로 나누어 이것을 磨製石鏃의 祖型 및 變遷過程等과 함께 考察하여 編年을 試圖하였는데, 韓國磨製石劍의 變遷

4) 尹德香, 1977, 「韓半島 磨製石劍의 一考察」〈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5) 金昌鎬, 1981, 「有柄式石劍型式分類試論」〈歷史教育論集 第2輯〉 pp. 59~85.

過程을 ① 磨製石劍發生期, ② 中國式銅劍模倣期, ③ 韓國式石劍擴散期, ④ 韓國式石劍定型期, ⑤ 韓國式石劍退期 등으로 나누고, 먼저 磨製石劍發生기와 磨製石劍의 祖型問題에 있어서는 磨製石劍의 祖型을 豆滿江流域에 來渡한 石棺墓人들이 使用한 骨劍에서 구하고 있다. 그리고 豆滿江流域의 柳葉形 長莖平根式石鏃이 赤峰 夏家店 上層文化의 骨鏃을 模倣한 것으로 보고 이 時期에 들어온 磨製手法을 利用 北方式銅器를 模倣한 磨製石劍이 나타난 것이라고 하여 韓國 磨製石劍의 發生을 B.C. 7世紀頃에서 B.C. 6世紀 前半頃으로 잡았다. 다음의 2期는 中國式銅劍의 模倣期로서 遼寧式銅劍이나 中國式銅劍을 模倣한 石劍이 製作되는 時期로 보고 中國式銅劍의 發生期인 春秋時代 後期前半보다 若干 늦은 時期부터 戰國時代 前期에 이르는 時期에 中國式銅劍을 模倣한 石劍이 登場한다고 보면서 이 時期를 B.C. 6世紀末·5世紀初에서 B.C. 4世紀初까지로 推定하였고, 3期는 石劍을 만드는 石材에 맞는 技法을 開發해서 石劍을 製作하는 時期로 各 類型이 祖型에서 遊離되어 銅劍의 模倣이라는 제약에서 脫皮하는 時期로서 이 때가 되면 有莖式石劍(A型)이 사라지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때를 B.C. 4世紀前半에서 B.C. 3世紀初頃으로 잡았다. 4期는 韓國式石劍이 石劍自體로서 典型的인 形式을 完成하는 時期로 보고 이 때를 B.C. 3世紀前半에서부터 B.C. 190年을 前後한 時期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韓國式石劍이 退化·消滅되는 5期는 새로이 波及되어 오는 金屬文化의 물결 속에서 一部地域에서는 磨製石劍의 製作이 中止되나 토착인들은 靑銅器를 대신해서 磨製石劍과 石鏃을 儀器로서 계속 使用한 것으로 풀이하고 이 時期를 B.C. 2世紀初에서 B.C. 1世紀中半까지로 보았다.⁶⁾ 全榮來氏의 要旨는 磨製石劍의 祖型을 제일 먼저 豆滿江流域 石棺墓人들이 使用한 骨劍에서 구한 점과 磨製石劍의 諸形式을 地域群 및 柄部·劍身·鐔部 등의 形態와 血溝·鎬의 有無 그리고 刃의 形態 등으로 細分하여 中國式銅劍에서 직접 祖型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磨製石劍에 관한 諸氏의 論考는 그 內容面에 있어 첫째, 磨製石劍分類의 基準問題에 있어서는 有光敎一氏와 金元龍氏·甲元眞之·尹德香氏·全榮來氏 등은 우선 柄의 製作形態를 中心으로 大別하고 있어 磨製石劍分類의 1次的 基準으로 삼은 反面, 金昌鎬氏는 鐔部の 形態를 分類의 1次的 基準으로 한 점에서 差異가 나며, 둘째는 分類의 1次的 基準을 같이 한 5人的 경우도 細部の 分類나 磨製石劍의 祖型問題 그리고 細分된 諸形式의 編年問題에는 다른 見解를 보이고 있으며, 셋째는 先行하는 磨製石劍의 祖型問題에 있어서 有光敎一氏는 韓國式銅劍을, 金元龍氏는 오르도스劍을, 甲元眞之氏는 韓國式銅劍과 中國式銅劍의 二元的인 것으로, 尹德香氏는 一段柄은 오르도스劍에서, 有莖式은 滿州式銅劍이나 未發見의 어떤 것에서, 二段柄은 古式의 滿州式銅劍이나 桃氏劍 또는 中國式銅劍에서, 節이 있는 것은 桃氏劍과 中國式銅劍에서 影響을 받은 것으로 하여 諸形式이 큰 時間的 差異가 없이 함께 登場하는 것으로, 全榮來氏는 豆滿江流域의 骨劍에서, 金昌鎬氏는 韓國式銅劍보다는 先行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대체로 日人學者들은 韓國 磨製石劍의 發生을 韓國式銅劍의 發生期인 B.C. 3世紀頃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우리 學者들은 韓國式銅劍의 發生보다 앞서는 것으로 보려는 두 가지 見解로 나누어진다. 네째, 韓國學者들 사이에서도 有莖式의 出現을 韓國式銅劍의 完成期로 보

6) ① 全榮來, 1982, 「韓國 磨製石劍·石鏃編年에 관한 研究」〈馬韓·百濟文化 4·5輯〉.

② 全榮來, 1976, 「完州 上林里出土 中國式銅劍에 대하여」〈全北遺蹟報告 6〉.

는 金元龍氏와 有莖式의 發生이 그보다 앞서는 것으로 보는 경우로 區分된다. 다섯째, 血溝劍의 問題에 있어서도 金昌鎬氏는 血溝가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 1期에 있어서는 先後關係가 뚜렷하지 않지만 2期에 이르면 血溝劍이 存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血溝劍이 앞서는 것으로 보는 反面, 尹德香氏는 有莖式의 경우 血溝가 있는 것이 나중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어 差異가 있으며 血溝의 問題에 있어서는 위에 紹介한 論考 외에 金良善氏가 一段柄式에는 血溝가 있는 例가 없다는 점을 指摘한 바가 있다.⁷⁾ 여섯째, 1959年 有光教一氏가 韓國 磨製石劍의 祖型을 韓國式銅劍에서 구한 後, 1962年 金良善氏가 韓國 磨製石劍의 祖型을 多元的으로 보면서 그 反對意見을 提示했고, 뒤이어 金載元·尹武炳 兩氏가 玉石里支石墓 下層의 住居址에서 出土된 有通有節二段柄式 磨製石劍의 例를 들어 有光教一氏의 說을 否定하면서부터⁸⁾ 有光教一氏의 韓國式銅劍 祖型說은 흔들리기 시작했으나 以後의 論考들이 磨製石劍의 祖型을 多元的인 것으로 보면서 諸問題의 解決을 試圖하고 있으나 그렇게 될 때 그러한 多元的인 祖型이 되는 銅劍들이 共伴되거나 發見되는 例가 없다는 점을 問題로 안고 있으므로⁹⁾ 앞에서 紹介한 바와 같이 아직 어떤 確實한 結論을 내지 못하고 있다.

위에 指摘한 이같은 諸問題는 山淸 默谷里 出土 磨製石劍의 年代編年이나 遺蹟의 性格을 推定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提示하고 있다.

4. 默谷里 出土 磨製石劍의 性格

앞에서 紹介한 諸氏의 주장 가운데 默谷里 出土 磨製石劍과 같은 類型의 石劍編年을 言及한 甲元眞之, 尹德香, 金昌鎬, 全榮來氏 等の 說을 根據해서 默谷里 出土 磨製石劍의 年代를 推定해 보면, 먼저 甲元眞之氏의 說에 의하면 默谷里 出土 磨製石劍은 有樋有莖式에서 變遷한 마지막 形式에 해당되고, 尹德香氏의 說에 의하면 二段柄式石劍과 類似한데 血溝가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移行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¹⁰⁾ 默谷里石劍은 無樋二段柄式石劍보다 빠른 것으로 推定할 수 있고, 金昌鎬氏의 說에 의하면 磨製石劍 I期에 해당되며 石鏃과의 共伴關係도 古式石鏃과 共伴하는 것으로 分類하여 가장 빠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¹¹⁾ 다음으로 全榮來氏의 說에 의한다면 默谷里石劍은 中國式銅劍模倣期(韓國 磨製石劍 II期)인 B.C. 6世紀末 또는 5世紀初에서 B.C. 4世紀前半頃에 걸치는 時期에 製作된 것이 된다.¹²⁾

그런데 默谷里石劍과 共伴된 石鏃 ②는 異例的인 것으로 石鏃에 관한 最近의 研究論文인 崔盛洛

7) 金良善, 1962, 「再考를 要하는 磨製石劍의 型式分類와 祖型考定問題」〈古文化 I〉 pp. 11~16.

8) 金載元·尹武炳, 1967, 「韓國支石墓研究」 p. 16.

玉石里의 放射性炭素測定年代가 2590±105 B.P.인 것이 韓國式銅劍(細形銅劍)의 發生年代보다 앞서는 것을 들어 玉石里 磨製石劍이 細形銅劍의 模倣이 아님을 주장.

9) ① 金英夏, 1979, 「磨製石劍의 祖型에 관하여」〈韓國史研究 24〉.

② 金英夏, 1978, 「磨製石劍存疑」〈考古美術 136·137號〉.

10) 尹德香, 註 4)의 p. 48.

11) 金昌鎬, 註 5)의 p. 75 및 表 7.

12) 全榮來, 註 6)의 ① pp. 86~87, 110, 第10圖.

氏의 分類에 따른다면¹³⁾ AⅢ式(無莖三角彎入鏃)과 有溝鏃의 混合形이다. AⅢ式石鏃은 東北地方과 西北地方에서 出土된 資料에 의하면 打製石鏃과 共伴하므로 打製石鏃이 磨製로 變化된 것으로 생각된다고¹⁴⁾ 하였으나 有溝鏃의 編年の 대해서는 言及이 없으며 默谷里石鏃 ①은, CⅡ式(二段莖鏃)의 上限을 B.C. 7世紀頃으로 보고, 下限은 金海期에 들어가서 消滅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¹⁵⁾ 위의 諸氏의 說 가운데 어느 한 쪽을 좇을 수도 없게 하고 있다. 다만 崔盛洛氏가 作成한 磨製石鏃 變遷圖와 全榮來氏의 磨製石劍·石鏃 編年圖¹⁶⁾ 등을 參考·折衷해 보면 默谷里 出土 磨製石劍은 적어도 B.C. 5世紀를 前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結論의 으로 默谷里 出土 磨製石劍과 石鏃은 靑銅器文化가 西部慶南地域에 波及되는 時期가 B.C. 5世紀 以前으로 遡及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6. 맺 는 말

磨製石劍·石鏃의 祖型과 編年問題에 있어서 國內의 學者들은 대체로 磨製石劍의 發生時期를 韓國式銅劍보다 앞서는 것으로 보려는 경향이고 日本學者들은 韓國式銅製과 같은 時期로 보려는 것이 하나의 경향인데 이러한 問題에 있어서 日本學者들의 立場에서는 日本 靑銅器文化의 開始年代와 結付된 先입견같은 것이 作用된 것으로 보이고 磨製石劍에 있어서 血溝의 有無問題는 劍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部分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學者들은 類型分類나 樣式考察에 있어 2次的인 것으로 다루거나 3次的인 것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은 血溝에 根據한 有光教一의 韓國式銅劍祖型說이 이미 立論의 素志를 잃고 있는 마당에 와서까지 血溝=韓國式銅劍이라는 문제에 대한 潛意識에서 나온 必要以上の 알레르기의 反應에서 나타난 結果인 것 같다.¹⁷⁾

새로운 遺物은 앞으로 계속해서 發見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새로운 資料에 의거하여 지난 날의 見解는 修正될 수 있는 것이지만 오늘의 立論은 오늘까지 發見된 資料를 바탕으로 하여 成立되는 것이 考古學이므로 限界를 넘는 推論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筆者는 山淸 默谷里 出土遺物을 紹介함에 있어서 學界에 새로운 資料를 提供하였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磨製石劍에 관한 보다 많은 論考가 나오기를 期待하는 바이다.

13) 崔盛洛, 1982, 「韓半島 磨製石鏃의 一考察」〈서울대학교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p.14 插圖 2.

14) 崔盛洛, 註 13)의 p.15.

15) 崔盛洛, 註 13)의 p.59.

16) ① 崔盛洛, 註 13)의 p.61.

② 全榮來, 註 6)의 ① p.110.

17) 이 問題에 있어서는 金英夏氏가 韓國式銅劍에는 血溝가 存在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金英夏, 註 9)의 ① pp.6~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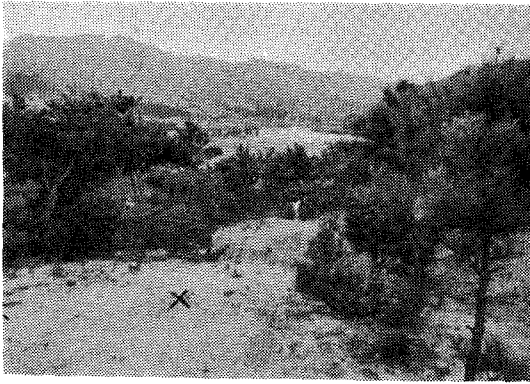


사진 1. 山淸 默谷里遺物 出土現場
(X表：遺物出土地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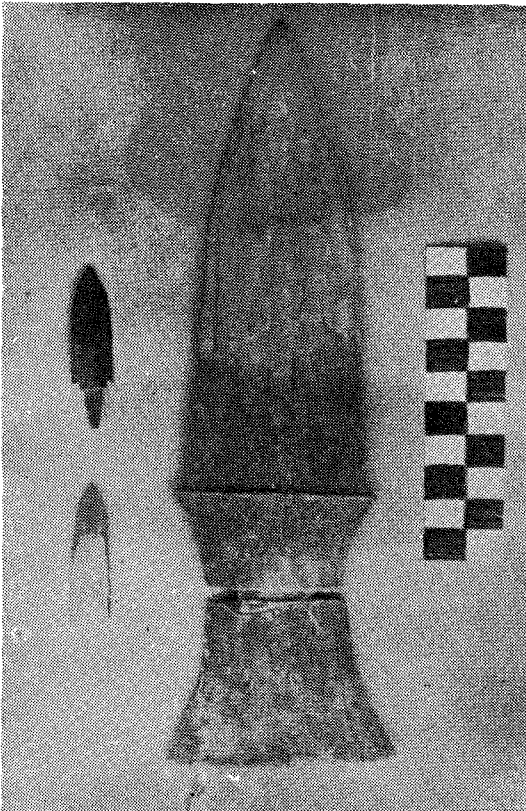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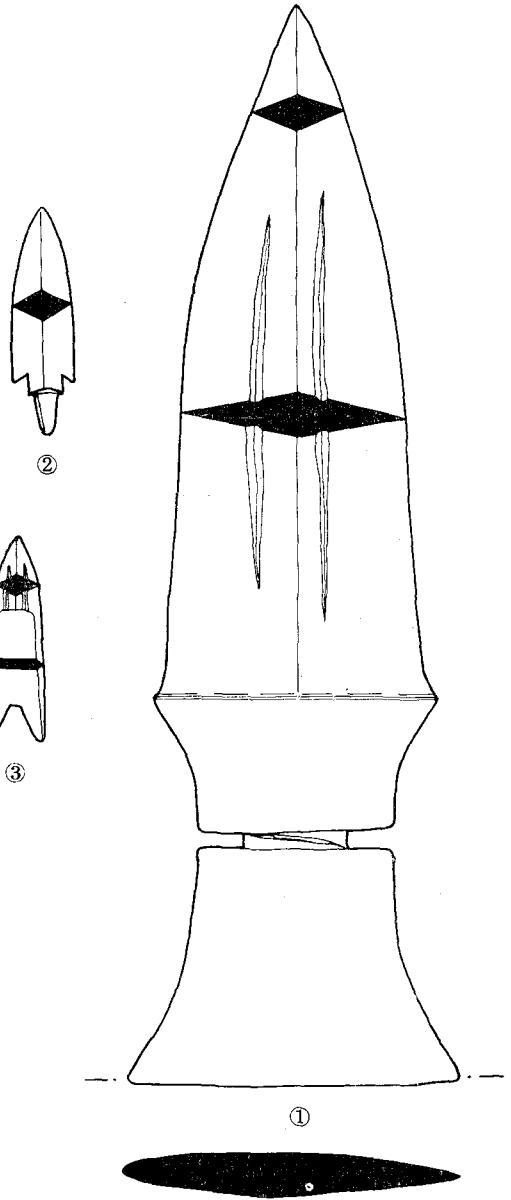


사진 2. 山淸 默谷里 出土
磨製石劍斗 磨製石劍



圖版 山淸 默谷里 出土 磨製石劍(①)
菱形有莖石劍(②) 및 血溝石劍斗
扁平彎入三角形石劍斗 混合形石劍(③)